

공동체 소식



연중 제31주일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위령성월 안내

- 위령성월은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
 시길 기도하는 성월입니다. 또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 친지, 은인
 들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봉
 헌하는 성월입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는 돌아가신 분들
 에게 전대사를 양도해 드릴 수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고해성사와
 미사 영성체 그리고 묘지방문으로 전대사를 받아 돌아가신 분들에
 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평신도주일 안내

- 11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 강론시간 : 평협회장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및 Thanksgiving Day 안내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 18일(일) 미사 후 식사있습니다.
 - 식사 후 평신도 협의회 있습니다.
 - 20일(화)~22일(목) 평일미사 없습니다.

▣ 그리스도왕 대축일 안내

- 25일(일)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이며 교회력으로 나해(B)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 교무금 완납해 주십시오.
 - 신앙생활 봉헌서와 안내서를 받으시고 가족이 함께 상의하시어 대
 림 3주까지 "성당봉헌용"을 봉헌해 주십시오

▣ 복사단 모임 안내

- 25일(일) 미사와 식사 후 복사단 모임 있습니다.

▣ 전례 봉사자 모집 안내

- 독서, 해설, 복사 전례 봉사자 모집합니다.
 -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 애찬 봉사자 모집

- 매 주일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형제,자매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신청은 전례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 기간: 10월 28일 - 11월 11일, 가격: \$60
 - 평일 미사 때 매일미사에 있는 영성체송을 합니다.
 - 미사에 참례전 가정에서 기도문과 독서, 복음말씀을 읽어 보시다.

▣ 한인회 기금 조성을 위한 일일 식당 안내

- 11월 11일(일) 오후 3시~8시
 - 1인 \$15(4세이하 무료)
 - 게시판 공문 참조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금 주	19	211	154	27
차 주	62	210	504	68

▣ 주일미사 복사

	항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하나) 김정빈(바로로)
차 주	문호진(안토니오)	김정원(안젤라) 김지안(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마르띠노) 최은미(아네스)
차 주	김대연 요셉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 애찬 봉사자

금 주	7조: 김명은, 한춘희, 최선윤
차 주	8조: 김명희, 박계숙, 박동희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박태주 로마노
차 주	김대연 요셉, 홍순익 마르띠노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이시며
 주님밖에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주시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
 을 다하여 영원한 대사제이신 성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
 이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석굴암에 있는 한국 수도자의 모습에 가톨릭 성인들의 상징을 결
 합하였습니다. 이 성인상에는 지금도 세상 어느 귀퉁이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하는 성인의 모습이 어려 있습니다. 문화를
 초월한 성인의 원형을 그렸습니다. 성인들의 축복이 온 우주에 가
 득합니다.

정미연 소화테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6,2-6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
 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별,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
 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7,23-28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28ㄱ-34

생명의 말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



어느덧 찬바람 부는 11월, '위령성월'의 첫 주일입니다. 멋들어진 가을 단풍잎들이 떨어져 버린 빈 가지에 바람 한 조각 스쳐 지나가면, 우리도 자연스레 옷깃을 여미며 어느 새 한 해의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달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의 전례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흘러간 올 한 해를 반성해 보게 되는 계절이며 우리보다 앞서가신 영령들을 위해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연중 제31주일의 복음 말씀은 '가장 큰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오 복음이나 루카 복음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에서는 질문을 던진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나쁜 의도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학자에게 '너는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칭찬까지 하십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당대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에게 곧잘 질문되어졌던 주요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도 248가지나 되는 계명들과 365가지나 되는 파생 법 규정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예수님 당시로서는 '성경' 전체에 해당하는)에서 두 구절을 인용해서 단순, 명쾌한 답변으로 여러 율법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만 질문받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묻지 않은 '둘째가는 계명'까지 함께 언급해 주십니다. 마치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계명을 이루는 양면인 듯이 말입니다. 이 두 계명은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러면서도 같지는 않은 서로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에서, 사랑의 척도는 '온 존재를 다 드리는 전적인 온전함'(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인 반면에, 둘째 계명에서 사랑의 척도는 '너 자신처럼'이 기준입니다. 하느님께는 전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의탁과 그분 뜻에 따름이 하느님을 사랑함에 있어 필수이고, 이웃 사랑은 우리가 받고 있는 하느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

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쉽지 않고, 용서하기 쉽지 않은 까닭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래서 당신 외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느님을 아직 충분히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멀지 않은 시점에, 오늘 복음은 성경 가르침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늘 사랑에 굶주린 우리에게 하느님은 이미 우리를 아낌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시니 이 사랑에 응답하라고 요청하시는 듯합니다. 사랑에 굶주리면서도 사랑하기에 인색한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온 존재로 응답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그 사람이
무얼 하나 궁금하다고?
무얼 먹는지 궁금하다고?
무얼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그 사람이 너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결국
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네.
이리저리 돌려 말해도
사랑하고 있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마르 12,3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담

말씀의 이삭

기다려 주시는 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스포츠 선수를 은퇴해서 어떻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지금은 새로운 꿈을 꾸는 박승희 리더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천주교 재단의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하느님과 가까이 있었네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 때 있었던 특기 적성 때문이었습니다. 선물처럼 다가온 운동을 9살에 시작하게 됐고, 학교에 다니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조금 과장되어 보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초등학교 시절은 학교, 아이스링크 그리고 성당이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이 학교와 아이스링크, 성당을 데려다 주시면서 늘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첫영성체를 받기는 했지만, 조금씩 운동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동을 핑계로 미사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성당에 가지 않았던 때도 있었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서는 단 한 번도 '왜 성당은 안 가니. 뭐가 더 중요하지 모르니!' 하시면서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고, '내가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시면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알았어요.' 하고 흘러들던 엄마의 말씀이 마음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았고, 그렇게 하느님과

멀어져 있던 5년이 지나고, 성당으로 향하는 부모님에게 '오늘은 나도 성당 갈까 하는데.'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미사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본 적이 없는 마음이었고 그 날 미사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울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

다. 지금도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미사 중에 느꼈던 그 평온한 마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성당에서 십자가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게 예수님은 '왜 이제야 왔니!'라고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어서 와라'라고 말씀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큰 위로를 받고 저는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 다그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던 부모님, 그러면서 오랜 시간 묵묵히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도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운동 역시 그때그때의 결과보다는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족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박승희 리더아
前 쇼트트랙·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교리상식



모든 성인의 날과 할러윈Halloween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할러윈이라는 말은 '거룩한 저녁'이란 뜻으로, 스코틀랜드어인 '모든 할로인들의 이브'라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할로는 켈트어로 '성인'을 뜻하며, 그래서 '모든 성인의 축일 전야제'라는 뜻이 됩니다. 풍속적으로는 켈트 문화의 추수축제 시기와 겹치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들과 아직 연옥에서 정화중인 영혼들을 기억하는 날이 할러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바탕에는 산 이와 죽은 이들의 통공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며, 곧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일궈간다는 것입니다.

글_『교리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